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살아 있는 자연이야기(실버)		
목표	실버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나무, 참나무, 조릿대를 소재로 함께 이야기 하고 자연놀이를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해설 주제	더불어 사는 숲에선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다.		
해설 재료	소나무, 참나무, 조릿대	소요 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90분)
동기유발	1. 국립공원	국립공원과 프로그램 소개		5'
	2. 속리산의 유래	속세를 떠나는 산 속리산		5'
주제심화	3. 소나무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 소나무	정이품송사진	5'
	4. 참나무	참나무 숲이 늘어가요	관련사진	5'
	5. 식물의 이동	식물의 씨앗 이동 방법	관련사진	5'
	6. 쓰러진 나무	쓰러진 나무도 숲의 가족입니다.	돋보기	5'
	7. 자연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5'
	8. 삼파수	조릿대 배만들기와 삼파수 이야기		10'
마무리	9. 마무리	평가와 재방문 권유	설문지	5'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국립공원 소개	<p>안녕하십니까? 속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어르신들 국립공원 많이 가보셨나요?</p> <p>어디어디 가보셨죠?</p> <p>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지리산을 최초로 현재 20곳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문화자원이 풍부한곳,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 되어 있는 곳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p> <p>그 중 속리산은 1970년 3월 24일 여섯 번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속리산은 세 번 오르면 극락으로 간다는 문장대를 비롯한 8대와 최고봉인 천왕봉 등 9개의 봉우리 8개의 석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승사적4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주사를 비롯하여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p> <p>예부터 조선팔경으로 손꼽힌 속리산은 세 번 오르면 극락으로 간다는 문장대를 비롯한 여덟 개의 대와 최고봉인 천왕봉을 포함한 아홉 개의 봉우리 그리고 여덟 개의 석문이 있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명승사적 4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p> <p>특히 속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생물자원은 중부지방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p> <p>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깃대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리산에서는 식물로는 망개나무, 동물로는 하늘다람쥐를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p> <p>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살아 숨쉬는 속리산 프로그램은 약 1시간 동안 속리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를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자연을 소재로 하는 놀이 드의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p>

2/10	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속리산의 유래	<p>속리산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p> <p>원래 구봉산으로 불리어오다가 신라시대 고승인 진표율사가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사에서 불상을 신고서 수도 할 곳을 찾아 이곳으로 오던 중 소달구지를 탄 농부를 만났는데 달구지를 끌던 황소가 진표스님과 불상을 보고는 엎드려 절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어리석은 짐승들도 부처님과 진표스님을 알아보고 존경의 뜻을 표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깨닫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타고 있던 사람도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들고 있던 낫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스님을 따라 입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 들어온 산’이라 하여 세속 속(俗)자와 떠날 리(離)자를 써서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p> <p>지금 서 계시는 이 길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전부터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 길은 길이가 약 5리가 된다고 하여 오리숲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오리숲에 들어서면는 것 속세와 단절의 시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p> <p>속리산과 관련해서 전해내려 오는 유명한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워 보실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도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데 세속이 산을 여의려 하는 구나. (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p> <p>어떠십니까? 속리산에 들어오니 속세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자 그럼 다 같이 속세를 떠나 숲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동 하겠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3. 소나무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항상 푸름을 잃지 않고 깎아 지른 절벽의 바위틈에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소나무의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속리산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한의 숲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수종 중 가장 많은 나무입니다.
 속리산에서 가장 유명한 소나무가 있죠?
 네 ~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조가 지나갈 때 가마가 걸리지 않도록 가지를 들어 주고 돌아가는 길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여 세조가 벼슬을 내려준 정이품송은 속리산을 대표하는 소나무입니다.
 오시는 길에 정이품송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이품송 옛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 주며 설명한다.)
 이렇게 위세가 당당했던 정이품송도 오랜 세월을 살면서 비바람을 맞고 태풍과 폭설 등으로 가지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보시다 시피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우리민족은 소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어떤걸 보면 그런걸 알 수 있을까요?
 (금줄, 송편 등 다양한 답변을 유도)
 소나무는 황장목이라 하여 옛날 임금의 관을 만들기도 하였고, 중요 건축물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변치 않는 기상의 상징으로 시나 그림에 단골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산에는 소나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의 산을 벌거숭이 산이라고 했을 만큼 산에 나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땔감 등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서 사용해서죠. 지금 보시는 이 숲에 큰 나무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햇빛이 바로 내리 쬐겠죠?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잘 자라겠죠?
 소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벌거숭이 산에서 제일 먼저 생겨나 우리나라 숲을 만들어 주었던 개척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4/10	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p>4. 참나무</p> 	<p>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p> <p>네 바로 참나무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나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참나무란 나무는 없습니다. 참나무류에 속하는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총칭하여 참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p> <p>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판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p> <p>조금 전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참나무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p> <p>네 소나무 숲이 우거지게 되면 그늘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빛으로 광합성을 해야하는 다른 어린나무 들이 살기가 힘들어 지게 되겠죠?.</p> <p>그런 곳에서 잘 자랄려면 적은 광합성 양으로도 잘 자랄 수 있어야 할 겁니다.</p> <p>그런 나무에 속하는 나무가 활엽수인 참나무인 것입니다. 활엽수는 일반적으로 성장속도가 침엽수 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참나무가 키가 크게 되면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를 가리게 되어 소나무는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p> <p>주위를 잘 살펴 참나무 틈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나무를 찾아 보세요</p> <p>자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산의 사진입니다.</p> <p>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많은 능선에는 소나무가 햇빛이 적은 골짜기에는 참나무가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참나무가 능선들까지 퍼지게 될 것입니다.</p> <p>참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무엇이라고 하나요?</p> <p>네,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p> <p>도토리는 다람쥐의 먹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동물에서부터 큰 동물까지 포유류 종류는 모두 도토리를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또 새들 가운데서도 어치와 꿩 등 덩치가 큰 종류는 도토리를 먹습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 무심코 도토리를 주워가는 행동이 자칫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p> <p>재미있는 것은 다람쥐는 도토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많은 도토리를 주워 다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숨겨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는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라고 합니다. 다람쥐가 여기 저기 숨겨 놓은 도토리를 다 기억하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는 그대로 참나무로 자라게 됩니다.</p> <p>참나무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고, 다람쥐는 참나무의 번식을 도와주는 자연의 지혜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무는 매년 늘어가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p> <p>다음 장소로 이동 하시겠습니다.</p>
	<p>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p>

5/10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식물의 이동	<p>(상황, 계절에 따라 맞는 소재(단풍나무, 겨우살이 등) 앞에서 진행 한다.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되는 각각의 식물 사진을 준비 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식물은 이동을 할까요?</p> <p>꽃이 피는 시기가 아주 짧거나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의 꽃을 피워 우리가 잘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p> <p>물론 식물은 동물들 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지혜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p> <p>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p> <p>여기 보시는 나무는 우리가 가을철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단풍나무입니다.</p> <p>자 우리 모두 손을 째~악 펴서 단풍나무 앞에 살짝 올려 볼까요? 어때요? 손바닥과 닮았나요?</p> <p>흔히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단풍나무는 우리 손바닥과 같이 잎이 다섯 갈래인 고로쇠, 잎이 5~7개로 갈라지는 단풍나무, 잎이 9~11개로 갈라지는 당단풍과 잎이 셋으로 갈라진 신나무, 잎자루에 작은 잎이 세장인 복자기 등이 있습니다.</p> <p>자 단풍나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함께 단풍나무의 씨앗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볼 수 없는 계절에는 씨앗 표본을 이용해 설명한다.) 어떻게 생겼죠?</p> <p>단풍나무의 씨앗은 양쪽에 날개가 2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 모양의 날개는 씨앗을 좀 더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p> <p>자 모두 같이 여기 참나무 위를 보실까요? 나무위에 마치 새 둥지 같이 생긴 또 다른 작은 나무가 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p> <p>네 저 나무를 우리는 겨우살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무에 붙어서 사는 기생식물입니다. 다른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빼앗아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기 때문에 '겨우살이'라고 불립니다.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다른 나무(기주식물)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만들어 사용한답니다.</p> <p>늘푸른 상록수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에 푸르다는 뜻의 동청(冬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p>

6/10

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저 겨우살이의 씨앗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터뜨려 보면 안이 끈적끈적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씨앗을 새들이 먹고 다른 나무에서 불일을 보면 그 끈적끈적 한 성질이 남아 있어서 씨앗이 나무에 붙어 있게 되고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세요. 정말 끈~~~적~~~ 하죠? 하하</p> <p>그 외에도 식물의 이동방법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이동 하는지 알아 볼까요?? (종류별로 한 가지씩 카드를 이용해 설명한다.)</p> <p>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네, 이 민들레의 씨앗의 모양입니다.</p>   <p>다들 한 번씩 붙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민들레는 바람을 이용하여 씨앗을 멀리 보내는 식물입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식물들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들을 몇 가지 설명한다.)</p>
6. 쓰러진 나무	<p>(돋보기를 준비하여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자세히 관찰, 냄새도 맡아보도록 한다.)</p> <p>여기 있는 쓰러지고 부서진 통나무를 만져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말해 볼까요? 냄새도 한번 맡아 보세요.</p> <p>나무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수많은 곤충, 식물의 뿌리, 균류 등이 파고들어 분해를 하게 됩니다. 나무가 부드러워지면 작은 생물들이 들어와 살면서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무로부터 나온 영양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p> <p>어떠세요 흙과 비슷한 냄새가 나나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꾸준한 영양공급 등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숲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마찬가지죠? 살아서는 자연 생태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죽어서는 흙이 되어 자신을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죠.</p> <p>과연 통나무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돋보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 보세요. (곤충을 찾도록 유도 한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자연놀이	<p>자 지금 까지 속리산에 관한 이야기와 몇가지 식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p> <p>여기 속리산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p> <p>네 아주 많은 종류의 생물과 돌과 같은 무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p> <p>지금부터 게임을 할건데요</p> <p>이 속리산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 아시는 것들에 대한 이름을 머리 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p> <p>게임의 제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하는 방법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하고는 다 대신에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p> <p>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참나무'라고 하면 참나무 흉내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p> <p>자 모두 함께 해 보실까요?</p> <p>연습 한번 하겠습니다.</p> <p>'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참나무'</p> <p>(저기 어르신 움직이는 참나무도 있습니까? 하하)</p> <p>자 이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p> <p>잘 하시는 어르신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제가 먼저 시작 하겠습니다.</p> <p>'무궁화 꽃이 피었습니~~~~소! 나무!</p> <p>어르신 소 흉내를 너무 잘내시는데요</p> <p>저기 어르신은 어떤 모양을 표현 하신거죠?</p> <p>자 돌아 가면서 한분씩 해 보세요.</p> <p>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p> <p>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썩은 나무!</p> <p>하하</p> <p>네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이 속리산을 이루고 있고 제각기 살아가는 모습과 다양한 모양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p>

8/10	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 삼파수	<p>(계곡 주변으로 이동하여 진행)</p> <p>네 여기 보이는 작은 대나무는 조릿대라고 합니다.</p> <p>옛날 우리 전통에는 정월 초하루가 밝기 전, 조릿대로 만든 복조리를 집 담장 안으로 던지고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복조리를 만든 재료가 바로 여기 있는 키가 작은 대나무 조릿대입니다.</p> <p>대나무는 나무에 속할까요? 풀 종류에 속할까요?</p> <p>대나무는 줄기에 관다발인 형성층이 없어 풀로 분류가 됩니다. 이 형성층은 2차 성장을 하게하여 나이테를 만듭니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있나요?</p> <p>네 조릿대는 보시는 것처럼 뻗뻗하게 자라 다른 식물을 거의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나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조릿대 군락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많은 산행으로 자꾸만 파여져가는 탐방로의 훼손을 방지하는 기특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p> <p>자 지금부터 조릿대 잎을 주워 배를 만들어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만든 후 계곡 밑으로 이동하여 진행한다.)</p> <p>만든 배를 띄워 보겠습니다.</p> <p>자, 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물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흐르는 것이겠죠?</p> <p>그럼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무엇일까요?</p> <p>속리산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문장대는 높이가 1054미터입니다. 천왕봉은 1058로 조금 더 높아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속리산은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분기점 즉, 남한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서 가장 높은 천왕봉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낙동강으로, 북서쪽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한강으로 흐르게 되고 남쪽은 금강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 삼파수라 부르기도 합니다.</p> <p>지금 이 곳은 천왕봉을 기점으로 봤을 때 북서쪽 방향으로 떨어져 지금 이곳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물은 괴산과 충주를 거쳐 서울 한강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p> <p>지금 띄우신 조릿대 배를 서울겨주하시는 분들은 한강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p> <p>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곳의 물을 오염시킨다면 결국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p> <p>서울에 안 사신다고요? (웃음)</p> <p>결국 우리가 오염시킨 물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자연에게 주는 대로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는 말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p> <p>그렇다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p> <p>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살아 숨 쉬는 속리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마무리.	<p>재미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생태계를 이야기 하는데 한 시간 남짓 짧은 시간에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지만 자연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말씀드렸던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못 다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p> <p>여기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자료는 프로그램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드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배부) 속리산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산행을 하실 경우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참여자들께서는 쓰레기를 버린다는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속리산 탐방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연! 우리의 미래'를 한 번 외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자연 ! 우리의 미래”</p> <p>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p>
10/10	신청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